

표지입니다.

# 출제자의 시선

## 1회 해설

### [1~4] 인문 스피노자의 인식론

1.

답 ②

정답

②: 두 대상이 동일할 때, 인과적 전이가 불가능한 경우는 인과 관계가 불투명한 경우이다. 3문단의 "물체와 관념이 동일하더라도 인과적으로는 연결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설명은 모든 경우에서 인과적 전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으로 볼 수 없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1문단에 따르면 자연은 유일한 실체이며, 인간은 사유와 연장의 두 가지 속성을 통해 실체를 파악할 수 있기에 적절하다.
- ③: 2문단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들 사이의 인과는 독립적으로 완결될 수 있기에 적절하다.
- ④: 스피노자가 주장한 물체와 관념 간의 동일론에 따르면 두 대상은 일치할 수 있기에 적절하다.
- ⑤: 스피노자가 주장한 물체와 관념 간의 평행론에 따르면 심신간의 상호작용을 부정하기에 적절하다.

2.

답 ④

정답

④: 두 양태가 동일한 경우, 즉 관념을 통해 실체를 파악한 모습과 연장을 통해 실체를 파악한 모습이 같을 때에도 4문단에 따르면 '어떤 방식'을 통해 실체를 파악했느냐에 따라 두 대상은 구분될 수 있다. 사유를 통해 파악한 인과 관계는 사유가 아닌 연장의 방식 안에서는 인과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서술하였기에 ④의 이유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①: 특정 사건이 논리적 관계를 포함하고 있을 때 해당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인과적 맥락은 불투명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이 논리적 관계를 포함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인간은 연장을 통해 물체를 파악할 수 있기에, 사유를 통해 물체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지만, 해당 설명은 평행론을 뒷받침하는 것이기에 평행론과 동일론의 양립 불가능성 해소에 대한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다.
- ③: 인과가 투명하다면 A와 동일한 A'를 대입하더라도 참 거짓이 바뀌 지않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⑤: 정신적 사건들과 물리적 사건들 간의 관계는 각각 독립적으로 완결될 수 있기에 적절하지 않다.

3.

답 ①

정답

ㄱ. 영식이 영희의 오빠임을 알고 있다면, 철수를 주제로 한 인과관계에서 두 대상은 동일하기에 인과적 전이가 가능하다. 따라서 적절한 진술이다.

오답해설

ㄴ. 인과적 투명성과 불투명성에 대한 서술은 인과적 참 거짓이 동일한 대상으로 구성된 인과적 참 거짓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학생 A가 \_\_\_는 직진한다고 배웠다."는 아무런 맥락이 없을 시 참일 수도, 거짓일 수 있기에 적절하지 않다. (참고: "학생 A가 빛은 직진한다고 배웠다.")

가 참인 경우 "학생 A가 전자기파는 직진한다고 배웠다."는 거짓일 수 있다.)  
ㄷ. 3문단에 따르면 인과적 연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건이 특정한 속성이나 설명 체계 아래에서 기술되어야 한다. 동일한 실체인 P와 Q가 동일한 설명 체계 아래에서 기술된 것은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에 "A는 P가 참임을 증명했다"는 진술에서 "A는 Q가 참임을 증명했다"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4.

답 ③

정답

③: 스피노자는 정신과 신체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였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스피노자는 유일한 실체인 자연을 사유와 연장을 통해 관념과 물체로 파악한다고 설명하였기에 적절한 서술이다.
- ②: 인과적 불투명성을 강조하는 것. 즉 존재론적으로 동일한 대상일지라도 인과적 전이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학자 B의 두 대상간 완전 환원이 가능하다고 보는 주장과 배치되기에 적절한 서술이다.
- ④: 인과 관계가 사건을 기술하는 방식과 관련있다는 설명은 인과가 불투명하다는 가정과 동일하기에 학자 B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며 스피노자는 동일한 대상인 관념과 물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기에 적절한 서술이다.
- ⑤: 두 대상이 동일한 경우 학자 B는 모든 정신적 상태는 물리적 상태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 적절한 서술이다.

### [5~7] 사회 리더쉽 이론

5.

답 ⑤

정답

⑤: 4문단에 따르면 아담스는 구성원이 불공정성을 지각할 때 '투입량을 줄이는' 등의 대응을 한다고 나와있음. 이는 스스로 노력의 양(투입량)을 조절하는 행위와 일치함.

오답해설

- ①: 1문단에 따르면 피드러는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를 상황의 통제력을 결정하는 변수로 보았을 뿐, 신뢰감이 클 때 '위임의 방식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지문에 언급되지 않음.
- ②: 1문단에 따르면 상황론적 접근은 리더의 외부적 행동 변화에만 치중할 뿐, 구성원의 '내면에서 동기가 형성되는 인지적 과정'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1문단 끝에 명시됨.
- ③: 2문단에 따르면 위생 요인의 개선은 불만을 사라지게 할 뿐 열정적 변화(몰입)로 직결되지 않으므로, 자발적 몰입을 끌어내기에 '충분'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음.
- ④: 브룸의 이론에서 동기는 기대, 수단성, 유의성의 곱으로 결정됨. 성과 달성 불능(기대=0) 시 전체 동기값은 0이 되므로 동기가 나타날 수 없음.

6.

답 ③

정답

③: 2문단의 위생 요인 개선의 한계(불만만 제거됨)와 4문단의 형평성 붕괴에

다른 시스템 와해(형평성이 무너지면 시스템 붕괴) 논리를 종합할 때 도출 가능한 가장 적절한 선지이다.

**오답해설**

- ①: 허즈버그(㉠)는 불만 제거가 곧 열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아담스(㉡)는 타인과의 비교를 동기 부여 시스템을 좌우하는 핵심 기제로 간주함.
- ②: 아담스(㉡)는 보상의 '절대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심리적 균형이라고 역설하므로, 절대적 가치가 핵심이라는 서술은 지문과 상충함.
- ④: 허즈버그(㉠)는 단순 처우 개선보다 직무의 의미 부여를 강조하며, 아담스(㉡)는 이직 방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투입 대비 보상 비율의 공정성을 다룸.
- ⑤: 리더십 스타일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꾸어야 한다는 내용은 피들러, 허시, 블랜차드 등 '상황론적 이론가'들의 주장임.

7.

**답** ⑤

**정답**

- ⑤: 보상이 매력적(3문단 유의성)이어도 공정성 지각이 훼손(4문단 아담스)되면, 환경 개선(2문단 위생 요인 관리)만으로는 조직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부족하다는 5문단의 결론적 추론과 일치함.

**오답해설**

- ①: (가)의 인테리어 교체는 2문단의 '위생 요인'에 해당함. (라)와 같은 밀착 감독(상황론적인 외부 행동)은 1문단에 근거할 때 내면적 성취감을 극대화하는 인지적인 답이 될 수 없음.
- ②: 아담스는 상대적 비교를 강조함. 4문단에 따르면 보상의 절대적 크기(나)나 환경 개선(가)만으로는 (다)에서 발생한 상대적 불공정성을 상쇄하기 어려움.
- ③: (다)에서 업무량을 줄여 투입을 조절하는 행위는 4문단(아담스)에 해당함. 이를 3문단의 '기대(노력→성과 확률)' 수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로 연결한 것은 인과관계 오류임.
- ④: 1문단에 근거할 때 리더의 외부 행동 양식(라)과 위생 요인 관리(가)는 내면적 동기 형성의 답을 제공하지 못함. 또한 (라)가 브룸의 '수단성'(성과→보상)을 확립한다는 근거도 지문에 없음.

[8~11] 교전소설  
작자 미상, 「옹고집전」

8.

**답** ③

**정답**

- ③: 층암절벽에서 실용가 앞에 나타나 그의 지난 허물을 꾸짖고 개과천선을 조건으로 부작을 건네준 주체는 '학대사'가 아니라 '백발도사'이다. 행위의 주체를 잘못 연결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해설**

- ①: 도사의 명을 받은 학대사가 남루한 행색을 하고 옹좌수의 집으로 내려와 시주를 권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옹좌수는 학대사에게 시주를 거절하며, 모든 것은 정해져 있다는 운명론적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모 은혜를 저버리고 불도에 귀의한 학대사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종 할미는 학대사에게 상전인 옹좌수가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음을 알리며, 잠에서 깬 경우 화를 당할 것을 경계하여 바삐 돌아갈 것을 권유하고 있으니 적절하다.
- ⑤: 실용가는 집으로 돌아와 가짜 옹고집과 자식들이 허수아비로 변한 것을 확인한 후, 부인에게 "그놈과 한가지로 얼마나 좋아하였는가"라고 물으며 가짜와 보낸 시간에 대해 추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9.

**답** ①

**정답**

- ①: "헌 굴갓 마의장삼 백팔염주 목에 걸고, 육환장을 손에 들고", "어간대청 너른 집에 네 귀에 풍경 달고 안팎 중문 솟을대문 좌우로 열렸는데" 등에서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는 대구의 방식과 대상을 나열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장면의 현장감과 생동감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②: 서술자의 냉소적 태도나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③: 서술자의 개입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인물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대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인물의 발화는 제시되어 있으나, 이들이 격언이나 성어를 인용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인물의 내면 심리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으며 외적 갈등이 내적 갈등으로 전이되는 과정 역시 드러나지 않는다.

10.

**답** ②

**정답**

- ②: ㉠은 옹고집의 세속적 부와 권위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중략 이후, 시련을 겪고 본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 실용가가 오히려 부인에게 "저놈 또 와서 지랄한다"며 가짜 취급을 받고 배척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장소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해설**

- ①: ㉡은 도사와 학대사가 머무는 불교적 공간으로, 도사가 옹고집의 악행을 벌하기 위해 사건을 계획하는 공간이다. 옹고집의 종교적 권위 부정이라는 심리적 태도가 투영된 공간이 아니다.
- ③: ㉢에서 실용가는 종교적 귀의를 결심하는 것이 아닌 고난 속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가족을 다시 보게 해달라며 가족 공동체로의 복귀를 간절히 애걸하고 있다.
- ④: ㉣은 가짜 옹고집을 물리치고 본래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는 주술적 도구이다. 도사는 옹고집의 과오를 꾸짖으며 개과천선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물을 도덕적으로 '면책'하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은 가짜 옹고집 일당의 정체가 드러나 본래의 형태로 바뀐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가짜가 소멸됨으로써 갈등이 해소되고 가족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장치이므로, 갈등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1.

**답** ⑤

**정답**

- ⑤: 실용가가 돌아온 후 부인이 '대경실색'하며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은, 집안에 이미 가짜 옹고집이 실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인물 개인의 갈등일 뿐이다. <보기>에서 언급한 '시련'은 인물을 '개과천선'의 단계로 이끄는 '방편'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데, 실용가는 이미 도사와의 만남과 부작 수령을 통해 개과천선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부인의 반응을 주인공이 겪어야 할 '마지막 시련'이라거나 '의도적 장치'로 파악하는 것은 지문의 맥락과 <보기>의 서술과 맞지 않다.

**오답해설**

- ①: 옹좌수가 부귀빈천은 이미 하늘이 정한 것이라고 강변하며 학대사를 비난하는 것은, 선악의 행보에 따라 복과 화가 결정된다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부정하는 태도이다. 이는 자신의 악행과 탐욕을 운명론으로 정당화하여 현재의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왜곡된 자아를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보기>의 관점과 부합하며 적절하다.
- ②: 실용가가 층암절벽에서 도사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하며 '늙은 모친'과 '처자'를 언급하는 대목은, 과거 자신의 불효를 자각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시련의 과정을 통해 단절되었던 가족 윤리에 대한 인식을 회복하려는 내면적 변화를 드러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 ③: 도사가 실용가에게 '부작'을 내어준 것은 징벌을 통해 잘못을 뉘우친 인물

에게 제공되는 매개체이다. 이는 주인공을 다시 일상적 공간과 본래 지위로 복귀시킨다는 점에서, 불교적 자비와 '교화'의 완성을 상징하는 서사적 장치로 볼 수 있다.

- ④: 가짜 옹고집의 자식들이 원래의 형체인 '허수아비'로 바뀌는 것은, 진짜 옹고집의 부재동안 유지되었던 비정상적이고 허위적인 질서가 해체되는 과정이다. 이는 개과천선한 주인공이 다시금 가장으로서의 위치를 확립하고 윤리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12~14] 현대시

(가) 김수영, 「그 방을 생각하며」

(나) 이성복, 「그 여름의 끝」

12.

답 ①

정답

- ①: (가)는 유사한 통사 구조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와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을 통해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고, (나)는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와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를 통해 유사한 통사 구조 반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시적 대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해설

- ②: (나)에서는 공감각적 심상을 확인할 수 없다.
- ③: (가)와 (나)에서는 계절의 흐름에 따른 자연물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
- ④: (가)에서는 색채어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없다.
- ⑤: (가)와 (나)에서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선 이동은 확인할 수 없다.

13.

답 ③

정답

- ③: ㉠은 잔재로, 달콤한 입속의 잔재이다. 또한 이는 되살아난 대상이 아니기에 입속에 부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방을 바꾸는 존재이며, 쓰디 쓴 담배 냄새가 되살아났기에 경직성을 지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화자가 바꾸기 전의 방의 벽에는 싸우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어둠을 지키고 있다. 또한 그 방은 이제 화자가 있지 않은, 부재하는 방이다. ㉠은 싸우라는 말이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는 행태를 회의하는 표현이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은 펜과 뼈와 광기의 형상으로, 녹이 슬었다는 것은 이 대상의 오래됨, 유구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때, 펜과 뼈와 광기는 실망의 가벼움과 같은 것이며, 화자는 이것을 취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④: 백일홍 나무가 폭풍이란 외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붉은 꽃들을 매달며 생명을 잉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 드러난다.
- ⑤: ㉣은 '나의 절망'과 나무가 똑같이 붉은 꽃들을 매다는 유사성을 지녔음을 형성하는 표현이다. 이때 붉은 꽃들은 장난처럼 매달리므로, 붉은 꽃들을 매다는 나의 절망이 지닌 생명력의 갑작스러움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14.

답 ⑤

정답

- ⑤: (나)에서 나무 백일홍의 억센 꽃들이 마당을 피로 덮을 때 화자의 절망은 끝난다. 이때 나의 절망은 백일홍과 동일하게 붉은 꽃들을 피우는 존재이다. 따라서 꽃들이 마당을 피로 덮은 것은 단순히 화자의 절망이 끝난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 절망의 극복을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보기>에 따르면 (가)에서 방은 화자의 내면 세계를 상징한다. 따라서 방을 바꾼 것은 혁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화자의 내면 세계를 화자가 바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나)에서 나무는 폭풍을 견디고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단다. 이는 고난을 버티내어 새로운 생명을 피워내는 자연물의 강인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③: <보기>에 따르면 (가)의 화자는 지향의 좌절이라는 현실 속에 놓여 회의와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이때 그 방에 모든 노래를 남기고 오는 행동은 화자가 의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동이라 볼 수 있으며, 화자의 가슴이 메마른 것은 화자가 느끼는 심적상태이다.
- ④: (가)에서 화자가 이 가벼움이 역사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실망의 가벼움이 미래의 토대가 될 가능성을 지녔다고 보는 것이며, (나)에서 붉은 꽃들을 매단 나의 절망이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은 것은 절망이 지닌 강인함을 드러내어 절망의 극복이 어렵다는 사유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15~18] 고전시가

(가) 김수영, 「그 방을 생각하며」

(나) 이성복, 「그 여름의 끝」

15.

답 ②

정답

- ②: (나)의 6수에서는 대구의 방식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생각하는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오답해설

- ①: (가)에서는 인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 ③: (가)에서 명령적 어조는 '자세히 들어보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이것이 자신의 충고에 대한 수용의 추구와 관련이 있지는 않다.
- ④: (나)에서 대조의 방식은 2수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인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 ⑤: (가)에서 청자인 '아이'를 호명하고는 있지만 상대의 의중을 묻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나)에서 대상을 예찬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외양을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16.

답 ④

정답

- ④: [B]에서 푸성귀를 뜯어먹는 대상은 한가롭게 지내는 대상이 맞지만, 삶은 콩을 배가 차도록 먹는 대상은 여름별에 큰 쟁기 마주 매는 대상으로, 한가롭게 지내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A]에서 소 치다가 늙은 인물을 언급하고 '가난하고 천하가 이 사람만 하라 마는'이라는 말을 한 것은 타인과 비교하여 대상의 궁핍한 정도를 드러내는 진술이다.
- ②: [B]에서 녹음에 놓인 송아지는 푸성귀 뜯어먹고 시냇물 마시는데, 이는 여유롭게 노니는 대상의 행적을 드러내는 것이다.
- ③: [A]에서 이윤이 술을 지고 부열이 달구지 드는 것은 맥락상 두 인물의 고된 생활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B]에서 코뚜레와 고삐는 이것을 찬 소가 농사일에 쓰인다는 현실적 제약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A]에서 부열을 발탁하며 큰 꿈이 벌판에서 매처럼 일어나는 것과 백석이 그치고 오고피에 팔려가는 것을 비교하는 것은 인생의 궁핍에 귀천이 아랑곳하겠냐는 인식으로 이어지므로 인생이 신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고, [B]에서 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저희'의 고단함을 가능하여 배불리 먹지만 열심히 일하는 소와 배부르지는 않지만 한가로운 소에 대하여 어느 것이 한가롭고 어느 것이 괴로운 것이냐는 인생에 대한 자신의 식견을 드러내고 있다.

17.

답 ③

정답

③: ㉠에서는 비단 거적으로 가로 덮은 희생의 외양과 제물로 바쳐진다는 용도가 비교되고 있고, ㉡에서는 화자에 대한 각시님네와 지나간 한 분의 태도가 비교되고 있다.

오답해설

- ①: ㉠에서 대상의 내적 모습이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에서 대상의 외양이 언급되는데, 이것이 물질적 가치가 부각된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에서 제물로 쓰이는 희생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으므로 희생이 지닌 물질적 가치가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 ④: ㉠과 ㉡에서 모두 화자가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⑤: ㉠과 ㉡에서 모두 화자가 겸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8.

답 ⑤

정답

⑤: (나)에서 벗님이 화자만을 사랑해주고 있다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가)에서 화자는 풍운을 품었느냐 때와 운명이 잘못 되었느냐 부귀를 꺼리느냐며 입신양명을 외물로 던져두고 연교 초야에서 소 치기만 한다고 아이에게 말하고 있다. 이때, 그 위의 진술로 하여 사대부 화자의 가치관은 인생의 궁달에 귀천이 상관없다는 가치관이다. 그런데, 상대방은 입신양명에 힘쓰지 않고 목동으로서 일만 하고 있으므로 저 진술은 사대부 화자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상대의 생활 방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②: (나)에서 화자의 모습에 대해 엇그제 지나간 한 분이 혼자 곱다고 한 것은 화자가 연모하는 대상이 다른 평범한 이들과 다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가)에서 부귀는 재천이라며 부귀가 언급되고 태도를 몰라도 인생을 소 치기에 안다고 언급되고 있다. 이는 출세가 운명에 좌우된다는 인식과 목동 화자의 일상인 소 치기를 통해 삶의 방식인 인생에 대해 깨우쳤다는 인식을 알 수 있다.
- ④: (나)에서 ‘그’는 화자가 연모하는 대상인 월곡으로, 그가 초옥삼간에 머무르며 사념이 없는 것은, 자연에 은거하며 잡념 없이 사는 면모이다. 이때 <보기>에 따르면 화자는 이 대상에 대해 연모함으로써 그 대상의 가치관을 통해 자신의 인생관을 드러낸다고 하였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